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보도자료**	희망의 새시대 http//www.motie.go.kr
2013년 11월 26일(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김선민 소재부품정책과장, 박지운 서기관(02-2110-5612)	

소재·부품, 무역흑자 2,000억불 시대 연다!

- 산업부, 소재·부품 "세계 4강" 달성을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 「제3차 소재부품발전 기본계획('13~'16)」 발표 -

★ **민·관 2조원 투자를 통한 시장선도 "10대 핵심소재(WPM)" 조기 상용화**
★ 對日 **무역역조 개선을 위한 "고부가가치 화학소재 클러스터" 조성**
★ **세계에서 인정받는** 中企 **특허 창출을 위한 "IP 책임관리제" 도입**
★ **중소·벤처기업의 중장기 소재 투자를 지원하는 "소재전용펀드" 조성**
★ **기술력 있는 소재부품기업의 자금 걱정을 없애주는 "상시 IR 시스템" 구축**

〈 제3차 소재부품발전 기본계획 발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소재부품 수출 6,500억 달러, 무역흑자 2,500억 달러를 달성함으로써 일본을 넘어 소재부품 세계 4강을 목표로 하는「소재부품 미래비전2020」을 구체화하는 실천계획을 발표하고, 박근혜정부의 성장전략인 창조경제 실현과 주력산업 고도화, 그리고 고용률 70% 달성을 적극 뒷받침 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 소재부품 수출(억달러): ('01) 620 → ('12) 2,534 → ('16) 4,500 → ('20) 6,500
* 소재부품 무역흑자(억달러): ('01) 27 → ('12) 910 → ('16) 1,700 → ('20) 2,500
* 소재부품 수출비중(%, 전산업 대비): ('01) 41 → ('12) 46 → ('16) 50 → ('20) 55

○ 윤상직 장관 주재로 "소재부품산업 정책간담회(서울팔래스 호텔, 12:00)를 열어, 그동안 수차례 업계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제3차 소재부품발전 기본계획('13~'16)』을 발표함.

〈 기본계획 수립 배경 〉

□ 우리 소재부품산업은 2001년 부품소재특별법 제정 등 지난 10여년간 정책지원이 본격화되고 업계의 국산화 노력과 수출주도형 성장에 힘입어 세계 수출 5위권에 진입하는 등 양적으로 빠른 성장을 이뤘으나,

* 산업부는 R&D 및 기반구축 지원을 위한 부품소재경쟁력향상사업을 통해 '01~'13년간 총 3.6조원 투입('01년 1,067억원 → '13년 3,742억원)

○ 산업경쟁력의 핵심원천인 첨단소재는 대일(對日) 무역역조의 근본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으며, 그 경쟁력은 여전히 취약한 가운데,

* 대일 全산업 무역적자 중 소재 비중: ('03) 31% → ('12) 47%
  대일 소재부품 무역적자 중 소재 비중: ('03) 43% → ('12) 54%
* 수입소재(예): PVA(Poly Vinyl Alcohol) 필름(디스플레이 편광판 소재) 100%, 폴리이미드(액정소재) 70% 등

○ 미국 등 선진국의 경기회복 지연, 신흥국 경기불안과 엔저 등 환율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중국의 소재부품 수출이 급증하는 "차이나 인사이드(China Inside)"가 가속화되며, 한중 FTA 협상도 급물살을 타고 있어 우리 소재부품산업에 대한 위기감이 한층 고조됨.

* China Inside: 완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소재·부품, 장비 등 중간재 부분에서 중국산 비중이 증가하는 현상

□ 이러한 우려 속에서도 다행히도 대일(對日) 소재부품 수입의존도와 적자규모가 줄고 있고, 우리 업계도 "첨단 소재"에 관심을 갖고 투자를 늘리는 등 청신호가 나타나고 있어 이 계기에 민관이 합심하여 우리 소재부품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 낼 발전전략이 필요하였음

* 소재부품 대일 수입의존도 완화: ('01) 28% → ('12) 23%
* 소재부품 대일 적자(억불): ('01) 105 → ('10) 243 → ('11) 228 → ('12) 222
* (삼성) 전자소재 연구단지 조성, (효성) 폴리케톤 소재 개발, 대규모 탄소소재 투자 등

〈 기본계획 주요 내용 〉

□ 이번 대책은 지난 2001년 부품소재특별법 제정이후 10년만에 소재부품산업의 제2도약을 위해 제시한「소재부품 미래비전2020('12~'20)」('11.11)의 정책의 지속성을 유지하면서 "4대 전략 및 12대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을 마련한 것임.

* 미래비전2020은 소재 경쟁력이 전체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트렌드에 대응하여 수립한 소재 중심의 중장기 발전전략

<「미래비전2020」의 "4대 전략 및 12대 과제" >



○ 기존 과제 중심으로 정책성과를 평가하고 후속 이행계획을 제시하는 한편, 소재부품산업에 대한 민간의 투자 확대를 촉진하여 정책과제 중심으로 민·관 노력의 성과와 결실을 조기에 창출하는 데 역점을 둠.

1 「4대 전략 및 12대 과제」의 성공적 달성을 위한 후속계획 실천

□ **핵심 소재·부품을 확보하기 위해 시장선도(First Mover)와 빠른 추격(Fast Follower)을 병행하는 전략(Two Track)을 추진해 나가기로 함**

○ 시장선도전략의 대표적 사업인 세계수준의 10대 핵심소재(WPM) 개발은 '13년부터 '16년까지 민관 2조원을 투자하여 파일럿 플랜트, 시제품 생산설비 등을 구축하여 R&D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할 것임.

* 미래시장 선점 10대 핵심소재(WPM: World Premier Materials) 개발(11~'19)은 세계시장 10억불, 시장점유율 30% 이상 가능한 친환경 스마트 표면처리강판, 수송기기용 초경량 Mg 소재 등 신소재를 개발하는 장기 대형 소재 R&D사업

○ 무역역조가 심화되는 100대 소재부품에 대해서는 정밀한 품목 분석을 통해 R&D, 직접 투자유치, 해외 M&A 등의 다각적 방안을 모색하고 선택적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임.

- 특히, 對日 소재 적자 중 40%를 차지하는 화학소재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여수 산업단지와 연계한 고부가가치 화학소재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갈 것임.

□ **국산 소재부품이 선진시장에서도 명품으로 인정받도록 기업지원 인프라를 강화해 나갈 것임**

○ 제조공정 전반에 걸쳐 활용되는 소재정보 관련해서 현재 저부가가치 범용 소재정보 제공에만 치우치고 있는 소재종합솔루션센터*의 기능을 보강하여 고부가가치 소재정보를 확충하고, 전국에 산재한 감성연구기관(기업, 대학, 연구소 등)을 연계하여 협업을 총괄하는 「감성 소재부품 R&D 센터」를 구축하는 한편, HW와 SW가 결합된 융합 부품의 오류와 고장을 확인하고 개선하기 위한 신뢰성 평가시스템(전문인력 등)도 확충할 것임.

* 소재종합솔루션센터: 소재개발 전주기에 걸쳐 소재 R&D에 필요한 소재정보, 기술자문, 테스트베드 등을 종합 지원하는 기업지원기관(전국 4개소)

○ 주로 회사 홍보·마케팅 목적으로 특허를 창출·관리해 온 중소기업이 그 관행을 벗어나 진정한 원천특허를 보유한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정부 소재부품 R&D에 "IP 책임관리제"를 도입하여 R&D 참여 중소기업의 특허 창출·관리 능력을 배양할 것임

* IP책임관리제: IP 전문가가 R&D 기획부터 과제 종료시까지 R&D 전과정에 참여하여 특허전략을 수립·컨설팅하고, 특허유용성 등을 R&D 성과평가에 반영

□ **성장유전자를 가진 유망 소재부품기업을 글로벌 소재부품 전문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패스트 트랙(Fast Track) 지원을 강화할 것임**

○ 글로벌 수요기업과 협력을 희망하는 유망기업을 대상으로 수출 또는 기술협력 분야에서 국내외 멘토 10,000여명을 확보하고 이를 활용해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1:1 멘토링을 강화할 것임

○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M&A 활성화를 위해 기업이 스스로 실시간 M&A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M&A 정보중개소」를 20개국 78개 M&A 자문사와 연계하여 구축할 계획임.

* M&A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중인 MergerID(홍콩소재)는 2천여 회원이 참여하여 매달 2만여건 정보매칭과 800여건의 협상 지원(비밀유지계약 체결)

2 정책·민간 자금의 투자 확대· 효율화 및 민관 협업 강화

□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중소・벤처기업의 선순환 생태계가 작동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의 투자・조정기능을 강화해 나갈 것임.**

○ 그간 장기간의 소재 개발・사업화에 충분한 자금조달을 받지 못했던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벤처기업이 안정적으로 소재분야에 투자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 맞춤형 "소재전용펀드"를 조성('14년 200억원) 할 것임.

○ 외국투자기관이 국내 소재・부품 분야 투자를 늘리도록 부품소재 특별법령을 개정하여 외국투자회사의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 설립(GP, 업무집행조합원)을 허용할 계획임

- 또한, 국내 소재부품기업이 해외자본을 투자 받고 해외 선진시장으로 쉽게 진출 가능하도록 해외 투자기관 또는 글로벌 기업(예: 소프트뱅크 등) 등과의 전략적 제휴도 추진할 것임.

○ 풍부한 투자자금이 적시적소(適時適所)에 투자되어 기술력이 우수한 숨겨진 중소・벤처기업이 투자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기관간 「소재・부품 전략투자협의회*」를 운영할 계획임.

* 산업부, 금융위, 중기청 및 유관기관(정책금융공사, 중진공 등) 공동참여

○ 기술력이 있더라도 투자를 받지 못하거나, 투자의사가 있더라도 투자대상 기업을 찾지 못하는 '정보 비대칭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성장단계 기업 중 기술성 평가를 거쳐 유망기업을 선정하고 투자기관 또는 M&A 희망기업과 연계하는 상시적 IR(Investor Relation) 시스템을 구축할 것임.

〈 간담회 관련 내용 〉

□ 윤상직 장관은 간담회에서 소재부품 4강 도약을 위해서는 빠른 추격자에서 벗어나 시장선도자로 나서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특허전략을 새롭게 정비하고, 첨단 신소재 개발에 있어서는 글로벌 수요기업이 보유한 소재 노하우를 적극 활용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민간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투자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당부하였음.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정책과 (☎ 02-2110-561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소재부품 정책간담회 개요

□ **일시/장소**: 11.25(월) 12:00~13:30 / 서울팔래스호텔 스카이볼룸(12층)

□ **세부계획**

시 간		주요 내용	비 고
12:00~12:05	(5분)	・모두말씀	장관
12:05~12:20	(15분)	・제3차 기본계획 보고・발표 (오찬 병행)	소재부품산업정책관
12:20~13:25	(65분)	・소재부품산업 새로운 도약방안 등 종합토론	
13:25~13:30	(5분)	・마무리 말씀	장관

*** 장관 모두말씀은 공개하고, 이후 일정은 비공개로 진행**

□ **주요 참석자**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상직	-
		소재부품정책관	최태현	
산	(주)제일모직	CTO	김종섭	소재
	포스코 기술연구원	원장(부사장)	우종수	
	(주)씨알-텍	대표이사	노선희	
	(주)나노신소재	대표이사	박장우	
	(주)우리산업	대표이사	김정우	부품
	(주)제이미크론	대표이사	황재익	뿌리
	(주)지니아텍	대표이사	김덕재	장비
	(주)에프엔에스테크	대표이사	한경희	
	(주)티이에스	부사장	윤준웅	
	부품소재투자기관협의회	회장	신장철	투자
	인텔 전략투자사업부	한국대표	한정수	
	(주)인텔렉츄얼 디스커버리	대표이사	강순곤	특허
연	생산기술연구원	센터장	박문수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원장	송재빈	시험인증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원장	정재훈	지원
	산업통상자원R&D 전략기획단	단장	박희재	
학	경상대학교	총장	권순기	-
	계원예술대학교	총장	이남식	-

붙임2 제3차 소재부품 발전 기본계획(요약)

Ⅰ. 추진 배경

□ **소재·부품산업은 특별법 제정('01년) 등 정책지원이 본격화된 이후 우리 경제의 핵심동력으로 성장**

○ '12년 全산업 수출의 46%(2,535억불), 무역흑자 910억불을 달성하는 등 세계 수출 5위권에 진입

* 세계시장 점유율('11년): (中)17.8%, (獨)10.4%, (美)9.6%, (日)7.4%, (韓)4.7%
* 제조업內 소재·부품산업 비중: 생산 45%, 부가가치 62%, 고용 51%

□ **빠른 추격자 전략으로 양적 성장을 이루었으나 첨단소재 경쟁력, 對日 무역역조, 對中 수출의존도(34%) 등은 여전히 개선이 필요**

* 전산업 對日 무역적자 중 소재비중 증가: ('03) 31% → ('12) 47%
* 반도체, LCD 관련 핵심소재는 대부분 일본에 의존(LCD 액정: 98% 수입)

□ **소재·부품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제시한 "소재부품 미래비전 2020"('11.11월)의 차질없는 이행과 성과창출에 주력할 시기**

○ 미래비전 발표이후 정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한중FTA 등 미래 환경변화를 감안한 구체적 실천방안을 제시할 필요

○ 궁극적으로 박근혜정부의 성장전략인 창조경제 실현 및 주력산업 고도화를 통한 안정적 경제성장과 고용률 70% 달성을 뒷받침

Ⅱ. 이행계획 내용구성

◈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미래비전2020」에서 제시한 "4대 전략 및 12대 과제" 중심으로 정책성과를 평가하고 후속계획 제시

◈ 아울러, 미래비전에 제시되지 않은 신규 정책과제 발굴·반영

□ (기존과제)「미래비전2020」의 "4대 전략 및 12대 과제"



□ (신규과제) 소재·부품산업에 대한 **정책·민간자금의 투자확대와 정책성과 조기 창출을 위한 민관 협업 강화** 등을 새롭게 추가

* 민·관 전략투자협의회 및 소재부품 R&D지원 협의체 구성·운영, 소재부품 투자 IR(Investor Relation) 상시화, 중소·벤처 전용 소재펀드 조성 등

Ⅲ. 정책추진 평가

□「미래비전 2020」에 반영된 12대과제 대부분은 정상추진 중

12대 과제	주요 현황 및 성과
1. 전략적 핵심소재 개발	○10대 핵심소재(WPM) 개발에 민간의 사업화 투자 7,600억원 유도(정부 2,000억원)
2. 민군 연계형 핵심 국방소재 확보	○산업-국방간 전략소재 개발 협력체계 구축
3. 벤처형 전문소재 개발 지원	○대기업형 영역으로 인식되는 소재분야에 중소·벤처기업 특화 R&D 프로그램 도입
4. 소프트웨어융합형 차세대 부품개발	○자동차·기계·전기전자 분야에서 22개 과제 선정·지원(초소형 스마트 환경센서 등)
5. 부품 명품화를 위한 신뢰성 기반 강화	○소재부품 R&D(산업부)에 신뢰성 설계 프로그램 적용 의무화(58개 과제)
6. 기술개발 프로그램의 전략성 제고	○정부R&D 참여경험이 없는 유망 중소기업도 정책지원 대상 포함

12대 과제	주요 현황 및 성과
7. 소재부품 전문기업 성장통 극복 지원	○ 성장정체 기업의 2단계 성장도약 기반 마련 * 공정개선 → 생산성 향상(75%), 매출성장(6%)
8. 소재부품산업의 뿌리생태계 확충	○ 「뿌리진흥법령」 제정을 통한 뿌리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구축 등
9. 미래형 소재부품 인재양성	○ 소재·융합 전문인력(400명), 현장 기술인력 및 경영전문인력 양성(1,500명) 본격화
10. 국내기업 주도형 글로벌 사업화 촉진	○ 비즈니스 협력모델을 통해 사업화 계약 확보(3억불 규모)
11. 주요 권역별 맞춤형 진출 지원	○ 미국, EU, 중국, 일본, 아세안 등 시장특성을 고려한 진출전략 수립·추진
12. 기술과 시장이 만나는 M&A 추진	○ 국내기업의 글로벌 M&A 촉진(6건)

Ⅳ. 주요 정책 향후계획

1 「4대 전략 및 12대 과제」의 성공적 달성을 위한 후속계획 실천

□ 핵심 소재·부품 확보를 위한 투트랙(Two-Track) 전략 추진

○ (**시장선도 전략**) 세계 수준의 10대 WPM을 조기 상용화하고 핵심 소재 개발의 효율화를 위한 "시장선도형 소재 R&D 전략" 수립

* 10대 핵심소재(WPM) 개발의 경우, '16년 내 파일럿 플랜트, 실증테스트 및 시제품 생산설비 구축 등을 통해 민간투자 1.7조원 유도

* 해양플랜트 등 극한환경에서의 특수소재 개발·사업화를 위해 수요기업이 보유한 소재 전문성 적극 활용(전략소재 비즈니스포럼 운영)

○ (**빠른 추격 전략**) 무역역조가 심화되는 100대 소재·부품에 대한 정밀한 품목분석을 통해 R&D, 투자유치, M&A 등 선택적 지원 강화

* 對日 소재적자 중 40%를 차지하나 정책지원이 미흡했던 고부가가치 화학소재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 조성(여수산단 연계) 추진 등

□ 국산 소재·부품의 명품화(名品化)를 위한 혁신지원 인프라 강화

○ (**소재종합솔루션센터 기능 강화**) 소재R&D에 필수적인 소재정보의 고급화와 온라인 시뮬레이션(설계·해석) 지원기능 등을 강화

○ (**감성 소재부품 R&D센터 구축**) 감성 관련 기존 연구기관(대학, 연구소, 기업 등)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협업센터 지정·운영

○ (**SW융합형 부품 신뢰성확보**) HW와 SW가 결합된 소재·부품의 사업화를 위한 신뢰성 평가시스템(전문인력, 장비, 평가기술 등) 구축

□ 중소기업의 특허관리 및 소재·부품 개발장비 국산화 강화

○ (**특허 全주기 관리**) 중소기업의 특허 창출·관리, 분쟁 대응 강화를 위한 IP 책임관리제* 도입, IP 풀(Pool) 보강 및 소송보험 활성화

* IP전문가가 R&D 기획부터 과제 종료시까지 R&D 全과정에 참여하여 특허전략 을 수립·컨설팅하고, 특허 유용성 등을 R&D 성과평가에 반영

○ (**장비국산화**) 국산 장비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신뢰성 제고

* 장비 개발단계에서 수요기관 실착 테스트, 공인기관 시험인증 등을 실시

□ 글로벌 시장진출 강화 및 해외 M&A 활성화

○ (**멘토링**) 수출·기술협력 등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 유망기업 대상으로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1:1 멘토링 강화 (국내외 멘토 Pool 10,000명 구축)

○ (**한·중 FTA**) 한중 FTA 관련 우리 기업의 對中 진출 확대를 위해 품목별·권역별 특성을 고려한 진출방안* 마련

* 철강, 석유화학, 비철, 디스플레이, 섬유 등 주요 업종별 경쟁력 강화 및 양국협력 방안

○ (**M&A**) 기업이 스스로 실시간 M&A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M&A 정보중개소 구축(20개국, 78개 자문사 연계)

* M&A 정보중개소 기능 : M&A 타겟기업 발굴, 단계별 M&A 컨설팅, 인수후 통합(PMI: Post Merger Integration) 지원 프로그램 등 '전주기 맞춤형 지원' 실시

□ **미래형 소재부품 인재 양성 및 일자리 연계 강화**

○ 산학융합지구 사업 등 연계를 통한 미래형 소재·융합 인재 확보

* 그래핀, 투명전극소재, 2차전지소재 등 유망분야의 전문연구인력 양성 추진

○ 다수 중소기업-인재조합-대학간 특별 교육프로그램(Track) 운영

* 3者 협의를 통한 커리큘럼 구성, 학생 선발 및 프로그램 운영 후 과정이수 학생은 인재조합 소속 기업에서 우선 채용

2 정책·민간 자금의 투자 효율화 및 민·관 협업 강화

□ **정책·민간 자금의 투자 효율화**

○ **정책펀드, 기금 등 정책자금*의 투자·조정 협의 강화**

* 모태펀드, 성장사다리펀드, "Death-Valley" 펀드 및 부품소재특별법상 기금 등

- 투자대상 선정 등 전략적 재원투자와 투자 사각지대 방지를 위해 관련기관*간 「소재·부품 전략투자협의회」 구성·운영

* 산업부, 금융위, 중기청 및 유관기관(정책금융공사, 중진공 등) 공동참여

○ **중소·벤처기업 투자지원을 위한 맞춤형 「소재펀드」 설계·도입** (투자의무 부여, 회수기간 長期)

- 우선적으로 '소재전문기업'에 투자하는 전문펀드를 모태펀드를 통해 조성하고('14년 200억원), 향후 별도의 투자재원 확보 추진

< 중소·벤처 맞춤형 소재펀드 도입 및 운용방안(예시) >

펀드규모	존속기간	출자방식	투자방법	운용방식
200억원 내외 (모태출자비율 40% 내외)	10년 내외	분할 납입 (Capital Call) 방식	융자를 제외한 모든 방식의 투자 허용 (신주, CB, BW 등)	소재기업에 대한 일정 비율 투자 의무화 (40% 이상)

○ **유망 소재·부품기업의 투자유치와 해외 선진시장 진출 강화를 위해 해외투자기관(글로벌 기업 등)과의 전략적 제휴* 추진**

* 단순한 재무적 투자자 보다는 소프트뱅크, 퀄컴, 인텔 등 해외 수요기업의 투자조직(CVC: Corporate Venture Capital)과의 파트너십 구축

- 또한, 일정 자격을 갖춘 외국투자회사도 부품소재특별법상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을 설립(GP, 업무집행조합원)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유망기업과 투자기관간 정보소통을 위한 IR(Investor Relation) 상시화**

- 유망기업 발굴 → 기술평가 → 투자유치 설명회 → 투자계약 등 원스톱 상시 지원을 위한 관계기관 네트워크* 구축

* 산업부(총괄조정), 부품소재투자기관협의회(기업발굴, 투자설명회), 산업기술평가원 전문가풀 등(기술평가), 민간 전문컨설팅사(IR 준비, 투자협상 대행)

- 성장단계 기업 중 유망기업을 선정, IR 컨설팅 지원 및 관리 등 투자기관과 매칭 및 M&A 희망 중소·중견·대기업 연계 지원

□ **성과창출을 위한 정책협업 강화**

○ **소재·부품 R&D 효율화를 위한 관계기관 네트워크 강화**

- **(관계부처)** 정부 R&D 사업의 성과 제고와 협업·관리를 위해 「소재·부품 R&D지원 협의체」 구성·운영

* 관련부처와 부처별 대표적 R&D 전담관리기관이 공동 참여하고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을 협의체 간사기관으로 지정

□ **소재부품 정책성과 평가 및 확산 시스템 구축**

○ "소재부품발전 기본계획"에 반영된 정책과제 중심으로 통합 성과분석을 정례화(연 1회)

* 부품소재산업경쟁력향상사업(R&D) 등 소재·부품정책 재정사업의 성과관리 강화를 위한 성과지표 개선

○ 정책성과 홍보·확산을 위한 「소재·부품 주간행사」 추진

* 매년 특정기간을 '소재부품 주간(週間)'으로 정례화 하고, 성과전시회, 수출상담회, 채용박람회(고용부), 투자활성화 행사 등을 종합연계 실시

참고 소재·부품산업 발전 비전

1 소재·부품산업의 수출, 무역흑자 증가



2 소재·부품산업의 성장 핵심축인 글로벌 전문기업 증가

